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유 희 정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서보다는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성격특성과 더욱 많이 관련되어 있다. Costa와 McCrae의 NEO모델에 따르면, E는 사회성, 뉘포, 활기, 사회적 개입 등과 같은 기질적인 특질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적인 정서 및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반면 N은 불안, 적의, 충동성 및 정신신체적 질병 등과 같은 기질적인 특질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적인 정서 및 불행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성격차원(E,N)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55세 이상의 남녀피험자 71명(남자 : 31명, 여자 : 40명)을 대상으로 성격차원 검사, 노인생활적응도 질문서, 질망감척도, 행복감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에서 Costa와 McCrae의 모델이 지지됨에 따라 성격차원(E,N)이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좀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노화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살펴보자면 Cumming과 Henry(1961)는 사회유리설(social disengagement theory)을 주장하였는데, 외부활동에 대해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려 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유리될 때 만족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사회적 상호관계에서의 역할, 활동 및 자아투입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Maddox(1963)는 활동설(activity theory)을 주장하였는데, 노인이 되어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사람이 적응 및 만족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Neugarten(1968)은 위의 두 이론과 입장이 달랐다. 그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 온 성격특성이 노년기의 적응특성에도 크게 반영된다고 하는 노화의 최적이론(the optimum theory of aging)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활동을 통하여서 심리적 안정

을 유지하며, 이는 일생을 통한 개인의 생활만족 정도와 연관되어 마침내 노년기에 특유한 성격 및 적응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어떤 사람들은 활동수준이 높을 때에 만족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유리되어 있을 때에 상대적 만족을 느낄 것이라는 노화의 최적이론을 발전시켜 나갔고, 성격을 노화유형에 있어서의 주요차원으로 보았다(Tubin & Jason, 1983).

Erikson은 어떤 생의 과제라 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해나간다면 성공하는 비율이 높고, 잘 통합된 성격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가장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ysenck의 성격이론은 외-내향성(Extraversion: Introversion : E-I),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N) 및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P)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환경적 변인보다는, 유전적 변인이 성격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와 N에 관해서만 다를 것이다. E는 피질상의 흥분(excitation)과 제지(inhibition)를 조정하는 피질망상환(cortico-reticular-loop)의 활동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중추신경계의 각성기체에 따른 활동으로 본다면, 정서의 안정성—불안정성(stability-instability)차원이기도 한 N은 변연계의 활동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며 자율신경계통의 작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telmack, 1981; Levey & Martin, 1981). Eysenck는 이 두 체계가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였고 둘다 피질상의 비동시흥분과 관련되고, 상행망상체(ascending reticular formation)에 의하여 조정된다고 하였다(Eysenck, 1967; Thayer, 1978). 전형적으로 E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전형적으로 N이 높은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이다(Eysenck & Eysenck,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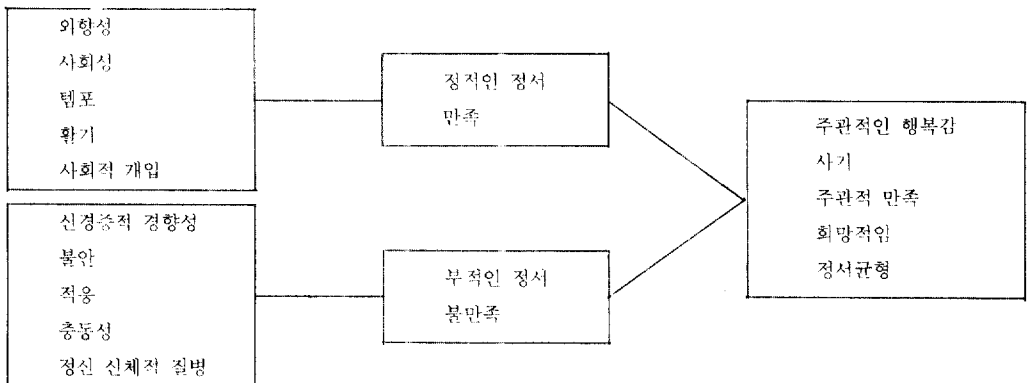
Costa & McCrae는 18측면으로 구성된 Neuroticism-Extraversion-Openness(NEO) 모델인 성격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Eysenck의 세 차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당히 유사하다(Eysenck, 1985). Costa & McCrae(1980a)는 E와 N을 행복감과 연결시켰다. 이들은 다양한 질문지(Bradburn의 PAS,

NAS, ABS와 Knutson의 Personality Security Inventory, Beck의 Hopeless Scale, Cattel의 16PF, Eysenck의 EPI)를 사용하여 E는 정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고 N은 부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가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발된 행복한 기분에 따라 성격특성이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성격특성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격특성은 지속되므로 현재 어떤 사람의 성격특성(E,N)을 알면 10년 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Costa & McCrae, 1980a).

Conley(1984)의 종단적 연구결과, 지능변인 만큼 일관성이 높지는 않으나 성격특성 역시 상당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능 및 성격과 같이 안정되고 유전적 요소가 큰 변인들과 자기의견(self-opinion)을 연결시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자기의견 자체에는 환경의 영향이 작용하게 되며 장기간에 걸쳐서는 일관성이 없다. 1~40년간의 기간에 따라 성격특질은 자기의견에 비해 20배 가량 안정되었으나 자기의견은 아주 단편적인 면에 대해서만 안정될 뿐이었다.

Leon(1979)은 성격특성의 안정성 및 변화를 보기 위해 MMPPI를 30년간에 걸쳐 4차례 실시한 결과, 프로파일 형태 및 개별척도 상관들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



(그림1) 주관적 행복감에 대하여 정적 및 부적인 정서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모델
(Costa & McCrae, 1980a)

다. McCrae(1982)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을 자기 자신이 평가함은 물론 부가적으로 배우자에 의해 평가되더라도 행동 및 경험적 측면에서 모두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위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특성이 전생애를 통하여 안정된 특성을 나타내므로, 성공적으로 노화과정에 적응해 나가는 데 주요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Havighurst이후부터 성공적인 노화를 두 측면에서 보았다. 한 측면은 외부적, 사회적 적응 등 각 개인의 활동 및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면 다른 측면은 내적 및 주관적 경험의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주관적 만족의 객관적 변인이 되는 인구학적 지표(년령, 가계수입, 교육정도, 사회적 특권...)에 의해서는, Campbell(1976)의 연구는 17%를, Andrews와 Withey(1976)의 연구에서는 단지 10% 이하의 생활만족에 관한 변량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Costa & McCrae, 1981). 각 개인의 인구학적인 변인들이 주관적 행복감 변량의 15% 이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Diener, 1984).

각 개인은 성격특성에 따라 행복 및 불행한 소인을 갖고 있으며, 성격특성이 전생애를 통하여 지속된다는 시사에 따라 행복 및 이를 확대시킨 노화과정에 대한 개인적 적응으로까지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다(Costa & McCrae, 1981). 본 연구에서는 E는 정적인 정서와, N은 부적인 정서와 관련되어 E,N이 행복감과 관계를 이룬다는 Costa와 McCrae의 기본적 주장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전체피험자를 성별 및 교육수준으로 구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I. E가 높을수록 유쾌한 정서가 작용함에 따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II. N이 높을수록 불유쾌한 정서가 작용함에 따라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피험자

55세 이상의 남녀 71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우리 나라 대부분 직종의 정년퇴직이 55세 이상이므로 이 연령으로 결정하였다). 피험자는 성별 및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모두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자였다.

절 차

S. B. G. Eysenck와 이 현수공저의 「성격차원검사」(EPQ) 성인용, Beck의 절망감 척도(Hopeless Scale), 윤 진역의 「노인생활 적응도 질문서」*, 행복감 평정 척도**를 각 피험자에게 실시하였다. 자료는 전체피험자를 성별 및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졸 이하의 남자 집단에 대해서만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외에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및 지난 30일간의 행복감과 상관에서, 여자 집단이 E와 현재의 행복감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 전부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설 I이 지지되었다. N과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설 II가 지지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지난 30일간의 행복감과 상관은 고졸이상 집단이 E와 지난 30일간의 행복감과 상관에서 그리고 중졸 이하의 집단이 E와 현재의 행복감과 상관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설 I이 지지되었다. N과 부적인 정서, 부

*Kozma와 Stones(1980)의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MUNSH)는 정적인 정서, 부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및 부적인 경험에 관한 24문항으로 구성.

**현재 및 지난 30일간 느낀 행복감을 7점 척도로 평정토록 함.

표1. 성별에 따른 E와 N 각각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지난 30일간의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및 절망감과의 상관.

성별	성격차원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행복감	지난30일간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
남 (31)	E (10.34, 3.72)	.6502**	.6104**	.4768*	.4457*	-.3931*	-.4020*	-.4601*
	N (12.09, 4.46)	-.4293*	-.4001*	-.4326*	-.3958*	.5288**	.5640**	.6370**
여 (40)	E (11.98, 4.50)	.5316**	.4538*	.2737	.4047*	-.4655*	-.4008**	-.5149**
	N (13.28, 4.15)	-.5093**	-.3568	-.4370*	-.4621*	.6485**	.6372**	.6251**

** P<.001 * P<.01

표2. 교육수준에 따른 E와N 각각과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지난 30일간의 행복감, 부적인 정서, 정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및 절망감과의 상관.

교육수준	성격차원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행복감	지난30일간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
고졸이상 (40)	E (11.22, 4.08)	.4870**	.4575*	.4408*	.3277	-.4253*	-.3172	-.5023**
	N (12.85, 4.49)	-.3563	-.3488	-.3433	-.3271	.6194**	.6381**	.6252**
중졸이하 (31)	E (11.53, 4.52)	.5919**	.5017*	.3552	.4241*	-.3791	-.4360*	-.4333*
	N (12.40, 4.16)	-.5969**	-.5409**	-.5866**	-.5713**	.5729**	.6405**	.6455**

** P<.001 * P<.01

표3.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E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지난 30일간의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및 절망감과의 상관.

성별	교육수준	E의평균과 표준편차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행복감	지난30일간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
남(20)	고졸이상	10.90, 3.55	.5743*	.6361*	.3545	.2556	-.3917	-.4889	-.5163*
여(20)	고졸이상	12.55, 4.22	.5895*	.3673	.3781	.5779*	-.4918	-.3371	-.6107*
남(11)	중졸이하	12.00, 4.00	.7410*	.7660*	.5398	.5562	-.3031	-.2790	-.4142
여(20)	중졸이하	11.26, 4.89	.5384*	.5369*	.2193	.3645	-.4013	-.3981	-.4419

** P<.001 * P<.01

표4.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N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의 행복감, 지난 30일간의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의 상관.

성별	교육수준	N의평균과 표준편차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행복감	지난30일간 행복감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
남(20)	고졸이상	12.00, 4.38	-.3018	-.3008	-.3143	-.2693	.4102	.5182*	.5652*
여(20)	고졸이상	13.70, 4.55	-.3920	-.5570*	-.3329	-.4339	.8109**	.7129**	.7126**
남(11)	중졸이하	11.55, 4.68	-.5296	-.4817	-.5810	-.6171	.6296	.6529	.8196*
여(20)	중졸이하	12.89, 3.87	-.6328*	-.4912	-.4673	-.4892	.5307*	.6252*	.6121*

** P<.001 * P<.01

적인 경험 및 절망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가설Ⅱ가 지지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피험자를 성별 및 교육 수준으로 동시에 구분하여 볼 때, E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과의 상관에서 고졸 이상의 여자집단이 E와 정적인 경험과의 상관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E와 현재의 행복감 및 지난 30일간의 행복감과의 상관에서는 대부분이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피험자를 성별 및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볼 때 N과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및 절망감과의 상관을 보자면, N과 부적인 정서와의 상관에서 고졸 이상의 남자집단과 중졸 이하의 여자집단이 N과 부정 경험과의 상관에서 중졸 이하의 남자집단이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고, N과 절망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1~4까지를 동시에 살펴보면 E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과의 정적인 상관 및 N과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의 정적인 상관 외에 부가적으로 E와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의 부적상관 및 N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과의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전체 피험자를 성별로만 구분한 경우에는 E와 N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교육수준으로 구분한 경우는 고졸 이상 집단의 E와 부적인 경험, 중졸 이하 집단의 E와 부적인 정서 및 중졸 이하 집단의 N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현재 행복감 및 지난 30일간의 행복감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그 외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 3·4에서처럼 전체 피험자를 성별 및 교육 수준으로 동시에 구분하여 볼 때 고졸 이상의 여자집단에서 E와 절망감 및 N과 정적인 경험에서, 중졸 이하의 여자집단에서 N과 정적인 정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부적인 상관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치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논 의

결과에서 E는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현재 및 지난 30일간)과 N은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 각각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을 보여서 가설 I·Ⅱ가 지지되었다. 부가하여 E는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 N은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과의 상관에서 전체 피험자를 성별로만 구분하였을 때 전부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성별 및 교육수준으로 동시에 구분하였을 때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상관을 보인 집단은 드물었다.

전체 피험자를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와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가 성별 및 교육수준으로 동시에 구분하였을 때에 비하여 E와 부적인 정서, 부적인 경험, 절망감과의 부적인 상관 및 N과 정적인 정서, 정적인 경험, 행복감의 부적인 상관이 더욱 유의미한 수준을 보인 부가적 결과는 피험자 수가 많음에 따른 통계학적인 기술상에서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E와 N은 독립된 차원으로서 E가 높은 사람은 N이 낮고, N이 높은 사람은 E가 낮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E와 N을 결합시켜 보자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즉, N이 낮으면서 E가 낮은 사람(low N introvert)과 N이 높으면서 E가 높은 사람(high N extravert)이 느끼는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의 정도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상이 다르다. 즉,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우울해 하지도 들떠 있지도 않는 반면, 후자에 속한 사람은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불행한 시간 역시 많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행복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주관적 만족이나 행복감을 보고하는 사람들간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Costa & McCrae, 1980a).

E는 정적인 정서와 N은 부적인 정서와 관련이 되는데, 이 각각의 정서들은 반대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며 상관이 없다. 따라서, Bradburn은 생활을 만족스럽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적인 정서를 감소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정적인 정서를 증진(Diener,

1984)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실은 E가 높은 사람일수록 적응을 잘 해나가므로 좀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성격과 행복감과의 상관을 다룬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E의 특징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불쾌감을 줄일 수는 없으나, 각 사람의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주는 반면, N의 특징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는 없으나, 불행에 대해서는 좀더 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Costa & McCrae, 1980a).

E와 N은 독립된 차원이므로 E차원의 한 극단에 속하는 내향적인 사람이 열성이나 활기를 적게 보인다하여 N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불안, 우울, 분노 등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Eysenck는 성격의 세 차원을 정신의학적 장애의 형태로까지 확대시켰다. 정신의학적 장애의 유형이 성격차원과 관련에서 의미가 상호교환 상태는 아니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성격특성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다(Eysenck & Eysenck, 1976). 여기서는 N과 E차원만을 관련시켜 보자면 신경증 집단은 외향성에 따라 집단이 나뉘지는데 불안, 공포, 강박, 우울신경증 집단은 내향적인 집단에 속하고 히스테리와 정신병질, 그리고 반사회적 집단은 외향적인 집단에 속한다.

Brickman(1979)은 행복감이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응 수준 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을 도입하여 대조(contrast)와 습관(habituation)화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복권당첨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데, 당첨이라는 평소와 다른 대조현상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상적 즐거움의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고, 습관화에 의해 당첨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순간적인 의기양양이나 낙담을 실제보다 좀더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합당치 못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노인의 연령을 여러 분류에서 60세로 잡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직종에서 55세를 정년퇴직 시기로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55세 이상을 피험대상으로 하였다. 나이가 들에 따라 많은 변화가 수반된다. 신체, 지각, 인지능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은퇴, 사별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 기동력이 줄고 표현능력의 변화가 커서 성격이 변한 것으로 지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회적, 생물학적 및 인지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 특질은 지속되면서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Costa & McCrae, 1980b).

본 연구에서 인구학적인 변인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 이상의 집단과 중졸 이하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E와 N에 대한 하위 변인과의 상관에서 두 집단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 속하였다. 따라서, 어떤 인구학적 변인이 행복감 측정에 제한된 영향밖에 미칠 수 없다는 점(Diener, 1984)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EPQ가 E와 N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다. 그러나, 단일한 측정도구로는 안전성이 낮고 측정치(관찰, 자기 평가, 타인 평가 등)수가 많을 때 안정성이 있다(Epstein, 1977)는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E와 N에 따라 보고되는 행복감 측정치들은 각 개인에 관한 전반적으로 평가한 통합된 판단을 요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배우자에 의한 판단, interview 및 생리적 측정치들의 여러 측정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Beck, A. T. & Weissman, A.(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rickman, P., Coates, D.& Janoff-Bulman, R.(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onley, J.J.(1984). The hierarchy of consistency: A review and model of findings on adul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elf-opin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11~25.

- Costa, P.T. & McCrae, R.R.(1980a)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osta, P.T., McCrae, R.R & Arenberg, D.(1980 b). Enduring dispositions in adul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793~800.
- Costa, P.T. McCrae, R.R. & Norris, A.H.(1981). Personal adjustment to aging: longitudinal prediction fro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Journal of Gerontology*, 36, 78~85.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pstein, S.(1979). The stability of behavior. On predicting most of the people much of the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97~1126.
- Eysenck, H.J.(1967).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Chales C Thomas, Publisher.
- Eysenck, H.J.(Ed.)(1981). *A Model for Personality*. Berlin: Springer-Verlag.
- Eysenck, H.J.(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Eysenck, H.J. & Eysenck, S.B.G.(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Junior & Adult). Hodder & Stoughton.
- Eysenck, H.J. & Eysenck, S.B.G.(1976). *Psychoticism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Hodder & Stoughton.
- Leon, G.R., Gillum, B., Gillum, R. & Gouze, M.(1979). Personality stability and over 30 year period-middle age to old 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7~524.
- Levey, A.B. & Martin, I.(1981). Personality and conditioning. In H.J. Eysenck(Ed.).
- Martin, M.(1985). Neuroticism as predisposition toward a depression: A cognitive mech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353~365.
- McCrae, R.R.(1982). Consensual validation of personality traits: Evidence from self-reports and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93~303.
- Neugarten, B.L., Havighurst, R.(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In B.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Press.
- Scherger, J.M., Tait, E. & Tavernelli, M.(1982). Temporal stability of personality b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76~182.
- Stelmack, R.M(1981). The psychophysiology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In H.J. Eysenck(Ed.).
- Thayer, R.E.(1978). Toward a psychological theory of multidimensional activation(arousal). *Motivation and Emotion*, 2, 1~34.
- Tubin, S.Q. & Jason, L.A.(1983). The influence of introversion-extraversion on activity choice and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17~22.
- Wilson, G.(1978). Introversion/Extraversion. In Exner, J.E.,(Ed.), *Dimensions of Personality*. Harvey, Lond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 :
With Reference to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Hee-Jung Yoo

Chung-Ang Universit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biological factors contribute to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 much more than demographic variables do. According to Costa & McCrae's model, extraversion which made up of traits of sociability, tempo, vigor and social involvement, is associated with positive affect and higher levels of happiness, whereas neuroticism which made up of traits of anxiety, anger, impulsivity, psychosomatic complaints, is associated with negative affect and lower levels of happines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dimension(E,N) and subjective well being of the elder based on the Costa & McCrae's model. The EPQ, the Hopeless scale, the MUNSH and the Happiness scale were administrated to 71 subjects aged over 55(31 males and 40 females).

The results supported experimental hypotheses and it is obviously concluded tha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re suggested as more important variables than any other demographic variables to account for subjective well-being.